

7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7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알코아+ 고용 지지’ 뉴욕 강보합.. 다우 0.06%↑	뉴욕 주식시장이 등락 끝에 강보합세로 마쳤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4.76포인트(0.06%) 상승한 8,183.1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38포인트(0.31%) 오른 1,752.55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3.12포인트(0.35%) 전진한 882.68을 각각 기록했다.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알코아의 실적과 주간 고용지표 개선이 지수 상승을 지지했음. 그러나 여전한 경제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내내 투자심리를 압박했고 6월 소매유통업체들의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발표되는데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2차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음. 주요 지수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 형성된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음. 소매유통주가 실적 부진 여파로 약세를 나타냈음. 반면 골드만삭스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에 힘입어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유가가 7일만에 반등하면서 에너지주도 올라 지수 하락을 방어했음.
美 신규실업수당청구 ‘6개월 최저’	미국의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전망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6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음. 그러나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수는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음.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4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5만 2,000명(계절조정) 감소한 56만 5,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 수준임.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60만 3,000명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한 수준임. 그러나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건수(27일 마감기준)는 15만 9,000명 늘어난 688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음.
버핏 "美 2차 경기부양책 필요하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미국의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 버핏 회장은 이날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경제가 자유낙하(freefall)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 회복 국면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돼 지난해 말 자유낙하 상황을 경험하면서 경제 행태가 엄청나게 변했다"고 진단했음. 버핏은 이에 따라 2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는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상반된 견해임. 버핏은 "2차 경기부양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옳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7870억달러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반쪽 짜리 처방약’에 비유했고 "1차 경기부양책은 절반은 비아그라로 절반은 사탕으로 채워진 것으로 강력한 약효를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음.

제목	주요 내용
유가 7일만에 소폭 반등	국제 유가는 7일만에 소폭 반등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7센트(0.4%) 오른 60.41달러에 마쳤음. 유가는 이날 장중 60달러선 아래로 밀려나며 59.2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으나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했음. 경제와 함께 원유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었으나 주간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같은 우려를 다소 진정시켰음.
中 외환보유고, 이제 2조달러도 넘는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의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678억달러 증가한 2조22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지난 1분기에 외환보유고는 77억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 현재 중국은 외환보유고의 3분의 2 가량을 미 국채 등 미국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달러화 가치 하락이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보유 자산의 가치 감소를 우려, 미 국채 보유를 축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英, 기준금리-양적완화책 동결	영란은행은 9일(현지시간)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현행 0.5%로 유지. 영란은행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4.5%포인트 인하한 뒤 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 영란은행은 아울러 국채와 회사채 등 채권 매입 규모도 1,250억파운드(2,020억달러)로 유지. 시장 일각에서 영란은행이 채권 매입 규모를 1,500억파운드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영란은행은 매입 규모를 동결.
‘한은, GDP 상향조정..2분기 2.3% 연간 -1.6%	한국은행은 9일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1.6%로 0.8%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음. 내년 전망치도 기존의 3.5%에서 3.6%로 0.1%포인트 높였음. 경기 개선 조짐은 연말로 갈수록 두드러질 전망. 상반기 -3.4%였던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0.2%의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 공공부문의 SOC투자 확대에 힘입어 건설투자가 2.2% 늘어나면서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낮은 가동률 수준과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15.1%나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내 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울 전망.
LS전선, 이라크 2억불 규모 사업 수주	LS(006260)는 9일 자회사인 LS전선이 이라크 Sinatel Company와 QPS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계약금액은 미화 2억달러(한화 약 2,557억원)이며 계약기간은 오는 2012년까지임. QPS시스템(Quadruple Play Service System)은 방송, 인터넷, 고정형전화, 이동전화 등 4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 네트워크를 뜻하는 말.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